

아루가 미츠토요의 한반도 주요활동

년도	주요 움직임 (한반도를 중심으로 재구성)
1873년	5월13일 아루가 미츠히코의 장남으로 나가노현 가미이나군에서 태어남
1890-1891	나가노현립 마츠모토 중학교를 졸업 후 도쿄법학원에 입학
1894년	7월에 도쿄법학원 영어법률과를 우등생으로 졸업. 12월에 근위야전포병연대 보충중대에 1년 지원병으로 입대하여 모범병이 됨
1895년	11월 지원병종말시험에 급제 후 제대. 다음해 3월에 육군포병소위가 됨.
1897년	11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
1898년	동향 선배로부터 메카타 타네타로를 소개받고, 그의 추천으로 대장성 소속 임관으로 주세국에 근무하게 됨. 그 후, 한국에 갈 때 까지 나가사키 세관감시부장 등을 역임.
1906년	1월10일 내각 사령을 받고 조선에 단신 부임. (조선통감부 설치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통감이 됨. 8월에 한일은행 설립. 통감부 철도관리국창설로 경부, 경인선 철도 매수. 경의선 개통) 2월9일 한국총세무사 사령에 의해 진남포세관장에 취임.
1908년	1월 한국정부관제 개정에 의해 통감부 일본인 간부는 전원 한국 관리로 임용. 한국정부로부터 다시 진남포세관장 사령을 받음. (헤이그 밀사 사건을 이유로 고종황제 퇴위. 8월에 순종황제 즉위)
1910년	1월10일 한국정부관세국서기관에 임명되어 감독부장이 됨. (3월 토지조사국창설. 8월 일본에 강제병합. 10월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취임. 조선총독부 관제가 공포됨)
1911년	7월14일 총독부도사무관으로 경기도내무부장이 됨.
1918년	6월20일 조선식산은행설립위원회 간사. 위원장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 8월28일 총독부 참사관 겸 총독부 사무관에 임명.

	<p>9월25일 겸관 및 본관을 면하여서 관료 생활을 끝냄.</p> <p>10월1일 조선식산은행 성립, 이사로 취임. 한국인 이사로는 박영효.</p>
1919년	<p>(1월22일 고종황제 봉어. 3월1일 독립만세운동 전개. 7월 조선신궁 창립. 8월, 3.1운동 영향으로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 사임 후 3대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이 됨. 헌병제도 폐지. 9월2일 신임 총독 사이토 일행에 강우규 폭탄 던짐)</p>
1920년	<p>7월2일 조선식산은행 두취(총재)에 임명됨</p>
1921년	<p>1월 조선잠사회 회두로 취임(16년11개월 재임)</p> <p>9월 조선산업조사위원회 촉탁</p> <p>11월 조선생명보험회사 고문으로 추천(재임 16년)</p>
1922년	<p>경성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에 취임(재임 15년 9개월)</p> <p>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취임(재임 15년 9개월)</p>
1923년	<p>3월 조선서적인쇄회사 창설</p> <p>7월 조선산립회 회장에 취임(재임 10년2개월)</p> <p>신설 만주은행 두취(총재)가 됨</p>
1925년	<p>7월2일 조선식산은행 총재임기 만료 및 2기 총재로 재임</p> <p>20일 조선중앙광업회사 대표취제(이사)역을 맡음. 전기 및 철도사업회사 사채를 인수(1500만엔), 본격적 사채 인수 시작(1927년부터는 조선지방채 발행 시작)</p>
1926년	<p>11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 창립위원장이 됨</p>
1928년	<p>6월22일 조선총독으로부터 임시교육심의위원회 위원을 촉탁(재임 9년5개월)</p> <p>8월6일 금융제도조사회 위원 촉탁(총독부로부터. 재임 9년 3개월)</p>
1929년	<p>5월 조선박람회 평의원과 이사를 위촉(조선총독부로부터)</p> <p>5월22일 미곡조사회 위원을 내각으로부터 명령받음</p> <p>7월1일 조선저축은행 설립, 초대 두취(총재)로 취임(자본금 500만엔)</p> <p>8월17일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이사로 취임(재임 8년3개월)</p>
1930년	<p>7월2일 조선식산은행 3기째 총재 취임</p>
1931년	<p>5월22일 은행관계 농장관리 경영을 위한 성업사 설립(자본금 200만 엔)</p>

	<p>9월19일 내각으로부터 조선전기사업조사위원회로 명령받음. (사이토 총독 사임 후 우가키 가즈시게 대장이 신총독으로 취임.)</p> <p>7월 만보산 사건의 영향으로 평양 등지에서 조선인 중국인 충돌 잦음.</p> <p>8월18일 만주사변 발발</p>
1932년(60세)	<p>3월4일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촉탁(재임 5년 8개월)</p> <p>5월17일 재단법인 금강산협회 부회장에 취임(재임 5년7개월)</p> <p>7월14일 사단법인 조선광업회 이사로 취임(재임 5년3개월)</p> <p>7월15일 사단법인 조선방송국 부총재로 취임(재임 5년3개월)</p> <p>7월23일 내각으로부터 농림성미곡부 고문을 명령받음</p> <p>11월9일 내각으로부터 미곡통제조사위원을 명령받음. (조선상공회의소 설립. 조선전기사업령 공포. 만주국 성립. 5월15일 일본서 이누가이 수상이 암살당함. 암살당함. 사이토 마코토 내각 성립)</p>
1933년(61세)	<p>12월22일 조선신탁회사(자본금 1000만엔) 설립.</p> <p>3월4일 조선한센병예방협회 평의원으로 취임(재임 4년8개월)</p> <p>5월6일 와카쿠사(약초)관음봉찬회장으로 건립에 매진</p> <p>5월18일 경성국방의회장으로 추천받음</p> <p>7월18일 조선금융조합연합회 회장이 됨(9월1일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창업)</p> <p>9월27일 조선경마협회 회장취임(재임 4년3개월)</p> <p>10월21일 제국비행협회 경성지부 이사로 취임(재임 4년2개월)</p> <p>12월19일 사단법인 선미(조선 쌀)협회회장으로 취임(협회 해산까지 10년 재임) (이 해에 영등포에 조선맥주 및 쇼와 기린맥주 공장이 설립되어 처음으로 조선산 맥주를 출하. 단, 처음엔 물과 왕관 콜크만 생산)</p>
1934년	<p>4월15일 조선국방의회연합회 회장으로 추천됨</p> <p>4월24일 내각으로부터 미곡생산비조사위원을 명령받음</p> <p>7월3일 귀족원령 제1조 제4호에 의해 귀족원의원으로 임명됨(일본 총리대신 명)</p> <p>7월13일 제 3대 저축은행 두취(총재)가 됨.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고문으로 취임</p> <p>9월1일 내각으로부터 미곡대책조사위원을 명령받음</p>

	<p>10월20일 일만면화협회 조선지부 고문으로 취임(재임 3년)</p> <p>11월30일 일만실업협회 평의원으로 취임(재임 3년)</p>
1935년	<p>7월2일 조선식산은행 두취(총재)로 4기 중임. (5월 강원도 영월 화전을 이용한 영월화력발전소 건설이 조선전력회사로 허가가 남)</p> <p>12월2일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 위원을 축탁받음(총독부로부터. 재임 2년)</p>
1936년	<p>1월8일 일본고주파중공업회사(자본금 1000만 엔) 아루가의 물밑 외교 파워로 설립. 본사는 경성에 둠.</p> <p>5월13일 제국재향군인회 경성지부 고문으로 추천받음</p> <p>6월13일 내각으로부터 내각조사국전문위원으로 명령받음.</p> <p>7월20일 아루가의 결단으로 경춘철도회사 설립(우시지마가 초대 사장).</p> <p>8월1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선만탁식회사설립위원을 축탁받음</p> <p>8월26일 정무총감으로부터 조선산업경제조사위원을 축탁받음</p> <p>9월15일 경성도시계획연구회 회장으로 취임(재임 1년2개월)</p> <p>11월21일 내각으로부터 미곡자치관리위원회 위원을 명령받음 (2.26, 일본에서 현역장교 병사들이 사이토마코토 수상 등을 암살. 8월에 우카키 총독 사임 후 미나미 지로 대장이 총독이 됨)</p>
1937년(65세)	<p>6월1일 한성은행 두취로 취임</p> <p>7월1일 내각으로부터 중앙경제의원회를 명령받음</p> <p>7월5일 고주파 상무로 입사 (7월 중일전쟁 발발. 9월에 조선임업개발회사 설립)</p> <p>10월30일 조선식산은행 두취를 사임하고 재주 32년의 조선, 재임 20년의 식산은행을 뒤로하고 도쿄로 건너감.</p> <p>11월13일 조선식산은행 고문으로 추거.</p> <p>12월2일 고주파 중공업회사 상담역으로 추천받음</p>
1938년(66세)	<p>2월7일 조선저축은행 고문으로 추거</p> <p>2월19일 내각으로부터 기획심의위원을 명령받음</p> <p>7월5일 일본고주파중공업회사 사장으로 취임(20일에 고주파회사 임시해군구매명부에 등록. 23일에 고주파 함경북도 성진 공장을 육군조병창 지정공장이 됨)</p> <p>8월27일 내각으로부터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 위원을 명령받음.</p>

1939년	<p>2월1일 한강수력전기회사(자본금 2500만 엔)설립, 사장에 취임. 4월28일 내각으로부터 일본미곡회사설립위원으로 명령받음 5월31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방송협회 고문을 명령받음 (6월에 국민징용령 발표. 10월에 총동원법에 의한 통제령 발표 속출)</p>
1940년(68세)	<p>2월8일 고주파자본금 1000만 엔을 5천만 엔으로 증자 결정. 차남 미츠노리와 노나카 양씨를 두취역으로 취임시킴. 3월 함경북도 성진, 도야마, 기타시나가와 각 공장의 제2기 확장계획설비. 3월15일 재단법인 도쿄응용과학연구소 이사로 취임 8월6일 일만실업협회 평의원으로 취임 8월 북한강물이 넘쳐서 한강수력전기 현장공장의 피해가 막대. (8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당함)</p>
1941년(69세)	<p>1월26일 내각으로부터 농림성식량관리국 고문을 명령받음 4월4일 한강수력전기회사 두취역 사장을 사임함. 5월10일 한강수전회사 고문으로 추거 8월 재단법인 중앙협화회 이사로 취임 9월15일 함경북도 성진 고주파병원 개원 9월25일 주식회사 와신(화신)상당역으로 추거 (8월, 수풍댐 만주측 송전개시. 9월에 수풍댐 조선측 송전개시. 12월에 태평양전쟁 개시)</p>
1942년(70세)	<p>6월21일 조선제련회사 두취역회 회장을 퇴임함 11월26일 동아경제간담회 평의원으로 선출 (2월, 일본 식량관리법 공포. 4월에 도쿄가 처음으로 공습받음. 5월에 1944년(쇼와 19년)부터 조선인 징병제도 실시를 결정. 같은 달, 미나미 지로 총독 사임 후 고이소 구니아키 대장이 신 총독이 되나 1944년 7월에 고이소 총독 사임 후 아베 노부유키 대장이 조선총독이 됨. 11월에 정부에 대동아성을 개설)</p>
1943년(71세)	<p>7월 조선전업주식회사 창립. 한강수전회사는 이곳으로 흡수 합병됨, 11월1일 일본원철회사 취체역 사장으로 취임 (3월에 조선전력관리령 공포. 10월에 상공성 명칭을 군수성으로 개명. 학생징병유예제도를 취소하고 학병으로 함. 11월에 미영중 각국에서 가이로선언. 12월에 조선중요물자영단 설립)</p>

1944년(72세)	<p>12월8일 고주파중공업회사 군수회사로 지정됨 (7월 고이소 총독 사임 후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취임 7월 토죠 내각 총사직, 고이소 전 총독이 수상으로 내각을 조직 11월에 도쿄 상공에 처음으로 B29기 출현, 공습히 격화 됨)</p>
1945년(73세)	<p>8월 일본의 패전으로 고주파회사 업무 씬. 성진공장은 소련군에 점령 당하나 나중에 북조선인민위원회 관리하에 들어갔다고 함. 10월 고주파 본사 및 건설중인 경성공장은 재한 미군군정청 명령에 의해 북선기업사로 인계됨. 12월11일 고주파 기타시나가와공장은 연합국 최고사령부로부터 민수생산(군수품 생산이 아닌)으로의 전환 허가를 받고 사업재개. (4월에 미군의 오키나와 본도 점령, 고이소내각 총사직 후 스즈키 내각 성립. 6월에 독일 패망과 히틀러 사망. 7월에 미영중 3국의 포츠담 회담. 일본의 항복조건을 결정함. 8월 미군이 원자폭탄을 6일에 히로시마,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 포츠담 선언 수락과 동시에 일본 항복함. 미군이 조선진주, 조선해방을 선언. 9월에 항복문서에 일본정부 조인함. 10월 시데하라 내각 성립. 12월 대일 관리이사회 설치)</p>
1946년(74세)	<p>1월 대장성령 제88호 및 그외 법령에 의해 고주파회사는 재외회사로 제약을 받음 3월 고주파 도야마 공장은 연합국 최고사령부로부터 민수생산에의 전환허가를 받고 사업재개. 10월1일 총사령부 각서 E항(일본의 팽창에 관계한 금융기관)의 간부에 해당한다고 하여 아루가 미츠토요는 공직 추방을 받음. (5월에 A급전범의 국제 재판 열림. 11월에 신헌법 공포됨)</p>
1947년(75세)	<p>5월31일 총사령부 각서 G항(유력한 회사 간부)에 해당된다고 하여 2중으로 공직추방을 받음 (4월에 일본은 6.3.3 신학제를 실시. 5월에 신헌법 시행)</p>
1948년(76세)	<p>12월에 감기 기운과 더불어 병상에 누움. (7월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취임. 11월에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토죠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에게 판결을 내림, 12월에 형 집행)</p>
1949년(77세)	<p>1월 중순 위암(말기암) 진단. 5월31일, 도쿄 세타카야쿠 기타자와 자택에서 사망. 8월 정령제291호 [구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본국에 있어서의 재단 정리에</p>

	<p>관한 정(부)령]에 의해 고주파회사는 내지(일본)법인으로서 신회사 설립준비를 시작함. 다음 해 5월에 신회사 일본고주파 강업주식회사 설립. 사장은 차남인 아루가 미츠노리</p>
<p>1951년</p>	<p>8월15일 각서 E항 G항 및 해당의 추방령이 해제됨 (1950년6월에 한국전쟁. 9월에 연합군이 서울 탈퇴. 12월에 중공군이 북한군에 가담하여 연합군은 철퇴개시. 1951년 1월 공산군이 다시 서울 점령. 연합군이 3월에 서울 재탈환. 4월 맥아더 장군 파면.-1953년7월에 휴전협정. 2013년에 정전 60주년을 맞이함)</p>

※ 자료작성 : 이수경 교수(도쿄가쿠게이대학)